

P-19 상악우측 중절치에 발현된 측방치주낭종(lateral periodontal cyst)의 임상 증례

이상현*, 정하나, 서은표, 김은경, 김영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측방치주낭종은 흔하지는 않지만 잘 알려진 치성낭종으로 맹출치의 측방치주조직에서 발생한다. 이의 원인과 병발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육성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뚜렷한 임상증상없이 발현되는 이 낭종은 이차적인 감염이 없다면 생활치를 보이며 주로 하악 견치와 소구치에서 주기적인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견된다.

방사선학적 소견은 치근의 측방에서 뚜렷히 경계된 둥근형태의 방사선 투과상을 나타내며 크기상 거의 1cm를 넘지 않는다.

조직학적 소견상 전형적으로 얇은 비증식성 상피층에 의해 이장된 cystic cavity를 보이며 glycogen을 함유한 clear cell 이 산재한 epithelial focal thickening 양상이 나타난다.

이 낭종은 slow cystic expansion에 의해 골 및 치주조직을 흡수시키므로 외과적 적출을 통해 치료되어야 하며, 일단 적출되고 나면 재발 경향은 적은 것으로 되어있다.

감별진단해야 할 질환으로는 치은낭종, 염증성 치주낭종, 치성각화성 낭종, 비치성 상악구상낭종, 절치관낭종 등이 있다.

이에 본 증례에서는 상악 전치부에 발생한 측방치주낭종의 치험례를 보고하고자 한다.